

# 점근선 (Asymptote)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김요한

## 작품소개

죽은 아내 “지혜”를 그리워하는 “수”, 그는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 그녀의 기억, 그녀 이름 등을 AI에게 끊임없이 알려준다. 그렇게 지혜와 가까워진 AI는 과연 지혜와 같은 사람일까?



밀폐된 헬멧 속에서 수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수는 온 몸에 힘을 뺀 채 작은 행성의 궤도 위를 떠다니는 중이었다. 행성의 표면은 녹아내린 암석들로 빛나고 있었다. 표면을 관찰하던 수는 헬멧의 디스플레이에 띄워진 시간을 행성에 맞춰 조정했다. 6시 41분 이었다.

수의 얼굴이 점차 밝아져갔다. 밝은 빛이 헬멧의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름 모를 행성에서 맞는 일출이었다. 수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별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헬멧의 디스플레이에 붉은 불빛이 깜빡거렸다. 수는 별에서 뻗어 나오는 빛줄기들을 손으로 가리면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있는지 떠올렸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은 있었다. 수는 뒤숭숭한 마음으로 우주선으로 복귀했다.

기압 조정실을 통과한 수에게 허리높이의 로봇이 다가왔다. 사실 로봇이라기보다 커다란 강통이라는 말이 어울릴법한 녀석이었다. 로봇의 표면에 검은 단발과 하얀 피부의 대조가 인상적인 수의 얼굴이 비쳤다.

“좀 비켜봐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수는 다가오는 로봇을 발로 밀친 채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고전스러운 편지봉투의 구석엔 J라고 적혀 있었다. 수가 기대하는 그녀의 첫 머리글자가 맞지만, 수는 메시지 앞에서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혹시 말이야. 아주 예전에 발신된 메시지가 우주를 돌고 돌아서 이제야 도착한 게 아닐까?”

[어휴, 등신.]

수는 로봇의 태도에 투덜거리면서 복도를 지나 콧빛으로 향했다. 수는 메시지를 공중에 띄워놓고 여는 것을 망설였다. 복권을 긁기 전 시간을 끄는 것과 비슷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은 정말 복권의 당첨확률과 마찬가지로였다.

가벼운 모터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콧빛에 들어서자 공중에 떠있던 수의 몸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수는 인공중력이 몸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며, 익숙하게 바닥에 발을 디뎠다.

콧빛의 테이블에는 그녀와 찍었던 사진 몇 개가 놓여있었다. 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메시지가 정말 그녀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생각이 많아진 수의 코끝에서 주홍빛 머리카락에서 느꼈던 그 향기가 다시 느껴졌다. 향기가 순식간에 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수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는 마른세수를 했다. 손끝은 긴장 때문에 차가워져 있

었다. 수는 마침내 손가락을 들었다.

[미안하지만 버그 리포트야. 죽은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올 리가 없잖아. 멍청아.]

깡통이 선수를 쳤다. 녀석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깡통을 노려보았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던 수의 감정들이 기화되어 사라져갔다. 남이 복권을 끊어버린 것과 다름없었다. 깡통은 수의 옆에 서서 커다란 눈알을 도록도록 굴렸다. 뭐 불만 있냐는 태도였다. 수는 녀석을 우주선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녀석은 가상세계에 차고 넘치는 시가 아니었다. 가상현실 [스바스티카]의 메인운영자이자 거대한 뇌 네트워크인 자칭 ‘섹시한 뇌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초고가 로봇이었다. 즉, 저 깡통을 조종하는 재수 없는 자식은 자신과 같은 생물학적 인간이었던 것이다. 수는 본사에서 본 징글징글한 뇌들을 떠올리며 소름이 끼쳐 팔을 쓰다듬었다.

“야, 깡통. 내가 메시지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냐?”

[죽은 사람을 뭣 하러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그래. 그냥 잊어버…….]

수의 손이 깡통의 머리를 여러 번 후려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계속 때려봐. 내 머리보다 네 손이 먼저 부서질 걸?]

분이 풀리지 않은 수는 깡통을 한번 발로 차고는 말했다.

“메시지 띄워.”

[진작 그럴 것이지.]

공중에 영사된 메시지는 ‘10월 19일 21차 베타서버 테스트 리포트’로 시작되고 있었다, 버그 리포트의 제목을 읽은 수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의자에 기댔다.

“이런 건 내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팀에게 보내야지. 난 운영팀이잖아. 절대속력인 광속을 두 배로 빠르게 해서 생긴 문제를 나보고 어찌라고. 빛이 초속 일억 미터든 이억 미터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핵심은 절대속도 변경이 아니야. 성급하기는.]

눈살을 찌푸린 수는 재수 없는 자식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버그 리포트를 다시 읽었다. 시가 베타서버에서 이상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후반부에 적혀있었다. 구구절절한 변명이 가득 적혀있었으나 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수는 튕겨지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를 베타서버에 데려갔다고?”

수는 아찔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 시는 이제 끝이야. 명백한 룰 위반이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는데도 그런단 말이야? AI를 데리고 베타서버로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에 있는 거잖아.”

‘AI와는 절대로 베타서버에 동행하지 아니한다.’ 수는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AI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였다.

[아마 이 J라는 테스트도 AI의 각성에 관심 있는 얼뜨기 분류 중 하나인가 보군.]

실제로 AI에게 이곳이 시뮬레이션 속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유저들의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강력한 제제와 운영자들의 헌신적인 노동으로 쉽게 무마되곤 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아니, 하지 말래서 더 하는 건가? 저번에 생긴 사이버 종교도 자연적으로 없애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뻔히 알 텐데.”

수는 테트릭사의 끊임없는 주입식 교육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테트릭의 CEO는 직원들에게 자주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전부 봐볼 것을 권장할 정도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초기인 베타서버라 AI의 이동이 거부되지 않았을 거야. 세계가 완전히 육성된 게 아니니까.]

“이래서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가상세계들이 좋은데 말이야. 백섹해버리면 끝이잖아. 뭐 자율적 세상이니 고립된 진짜 우주라느니 하면 뭐하냐고.”

수가 짜증을 쏟아내자 깡통이 피식거렸다.

[그래도 빅뱅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까지 사고 없이 잘 육성해 왔잖아. 덕분에 너 같은 얼뜨기도 운영자라고 고용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이만한 사업이 없지.]

수는 그런 깡통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운영자가 많으면 뭐 하나, 오류가 그보다 더 많은데.”

[뭐, 덕분에 진짜 우주 같은 공간을 만든 거잖아? 관리는 잘 안 되지만.]

[스바스티카]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바이오스피어나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그런 철저한 간섭제약 때문에, 운영진들이 일일이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수는 열심히 버그 리포트를 읽어 내려가다가 짜증이 났는지 리포트를 꺼버렸다.

“일단 베타서버로 가자. J란 녀석이 얼마나 멍청한 녀석인지 가서 봐야겠어.”

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주선 주위의 별빛이 늘어지기 시작했다. 수는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빛들을 보며 어금니를 물었다. 왜곡된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몸이 늘어나는 듯한 이 이상한 감각은 가상세계에서도 현

실과 똑같았다.

생각해보면 현실과 똑같이 세팅한 가상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수는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에 첨부된 AI정보를 띄웠다. 첫 페이지의 AI코드를 본 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JI/SU - 32번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지?”

[너의 기억을 사용한 AI 라인 말이지. 그런 게 왜 아직도 생산되고 있는지 몰라. 저런 얼간이가 반이나 섞여있는데 말이야.]

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강통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말으면 안 되냐?”

강통이 눈을 가늘게 뜨며 투덜거렸다.

[왜 혹시 너랑 똑같이 생겼을 까봐 짹짹하냐?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거 알면서 그래? 팔자 좋다?]

수는 입을 비죽 내밀었다.

“너 같으면 말겠냐?”

[뭐 짹짹할 것도 없잖아. 어차피 기억의 공유라고 해봤자 반절정도고. 나머지 반은 다른 사람이니까. 절대, 너랑 똑같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AI기록을 읽었다. JI/SU -32의 이름은 101이었다.

“101이 뭐야 101이. 데리고 다닐 정도의 AI면 이름이라도 잘 지어주지.”

[보통 AI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 그리고 101이면 양호한 편이지. 누구처럼 슴슴이라고 붙인 것 보아야 낫지 않을까.]

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슴슴이는 자신이 이 가상세계에 데리고 다니던 AI였다.

“스름이가 101보다는 낫지 왜 그래. 인생 무탈하게 큰 일없이 잘 살라는 뜻인데.”

[넌 아직도 그런다. ‘살다’는 AI에게 어울리는 동사가 아니야. 가동하다. 혹은 움직이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승진을 못하는 거야.]

수는 슴슴이가 폐기되던 때를 생각하며 표정을 찌푸렸다. 그런 수의 표정을 본 강통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노래를 불렀다.

[수를 폐기하는 수라니.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겠군.]

강통의 목소리가 빛의 궤도를 따라 늘어졌다.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장님. 어떠한 물질도 빛의 속도 이상

으로 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어두운 복도의 끝에서 깐깐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목소리와 정 반대였다. 수의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저랬다면 끔찍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성별도 바꾸는 게 가능했던가?”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가상세계의 NPC일 뿐이니까. 특수 주문했나보지.]

“그러니까 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마 기장님은 스스로 신이라도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어이구야.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구구절절이 했나본데.]

콧빛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대사를 보아하니 꽤나 귀찮아질 것이 분명했다. 수는 마른세수를 했다. 사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SI의 소거를 진행해본 적이 없었다. 분명 글로 읽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다. 머뭇거리며 손을 보던 강통은 앞장서서 콧빛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두 명의 사람. 정확하게는 한명의 유저와 한명의 SI가 수와 강통을 쳐다보았다. 테스트인 J는 우주비행사의 모습으로 콧빛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멋진 직업이지. 최고의 우주비행사보다 중저가의 SI가 더 믿음직하다는 걸 논외로 친다면 말이야.’

수가 J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을 때 J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오셨습니다. 교육 사무관님”

J와 악수한 수는 뒤에 서있는 101을 보았다. 검은 단발머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홍빛 눈동자였다. 그것은 기억 속 주홍빛 머리카락의 색감과 꼭 닮아있었다. J는 J/SU 라인의 외형은 바꾸지 않고 목소리만 바꾼 듯 했다. 때문에 수는 자신과 얼핏 비슷해 보이는 듯한 101의 외모가 부담스러웠다.

“신입 항해사를 데리고 이 우주에 왔다고요?”

“죄송합니다. 기분을 내다가 101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J는 강통의 예측과는 달리 그저 실수로 101을 데려온 모양이었다. 수는 그런 J의 모습에 더 짜증이 났다. 겨우 그런 실수 때문에, 101은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었다.

“저런, 머리의 성능이 많이 부족하신가보군. 아니, 그 정도라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고 불러야 하나.”

수의 모욕을 듣고 J의 얼굴이 굳었다.

[수. J가 잘못된 건 맞지만 너무 흥분한 거 같은데?]

강통이 수를 뒤로 밀어냈다.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낀 수는 황급히 J에게 사과

했다. 수는 자신이 SI에게 너무 몰입했음을 깨달았다. J와 101의 불편한 눈빛이 느껴졌다.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교육 사무관님을 불렀습니다. 101의 교육 때문이에요.”

‘교육’. 101을 폐기처분해달라는 말이었다. 수는 머리를 쓸어 올렸다. 자꾸 101의 주홍빛 홍채가 마음에 걸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101의 담당으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처리된 뒤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수와 J는 101이 시뮬레이션 운영상의 일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몇 가지의 지정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SI를 폐기하는 순간까지 SI가 시뮬레이션 속이라는 것을 눈치 채는 일은 없어야 했다. 101은 J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수에게 물었다.

“잠시 만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101의 질문 때문에, 수는 일이 귀찮아질 것임을 느꼈다. 가상세계의 진행을 시간과 유연성에 맡긴다는 건, 결국 이런 귀찮고 짜증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단 우주선에 타고 이야기 합시다.”

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101을 자신의 우주선으로 안내했다. 그녀를 데리고 폐기장이 있는 행성으로 갈 생각이었다.

콕핏으로 이어지는 문은 모터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열렸다. 101은 우주선의 콕핏에 들어서자마자 수에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간단해. 눈만 감고 있으면 다 끝날 거야.]

수에게 한 질문에 깡통이 대답하며 허공에 해골문양을 띄웠다. 수는 황급하게 해골문양을 지우며 말했다.

“별거 없어. 자네의 상관 때문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몇 가지 기밀에 대한 조치 때문이니까.”

수를 뺨히 쳐다보던 101은 눈을 감으며 관자놀이를 주물렀다.

“다른 우주가 있다느니, 기장님은 이 우주의 일원이 아니라느니 하는 이야기 말입니까? 그런 건 음모론이나 사이비종교에서나…….”

수는 이마를 짚었다. J는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테스트임이 틀림없었다.



‘아니면 정말로 이 AI를 각성시키려고 했다가 겁이 나서 이런 일을 벌였을 지도.’

수는 J가 혹시 AI각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수와 달리, 깡통은 즐거운 듯 킬킬거렸다.

[그 뚱명청이가 쓸데없는 말을 해놓았군. 그러한 기밀사항은 조직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수는 목을 가다듬으며 깡통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세상이 알면 알수록 놀랍지 않나? 그런 음모론자 멍청이도 기장이 될 수 있고 말이야.”

상황을 무마하려는 수의 말에 깡통이 키득거렸고, 101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를 쳐다보았다.

[축하해. 자네도 이제 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군. 다른 우주의 신들이 이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기장님의 말이 옳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우주에서 오신 감시자라도 된다고 하시게요?”

어이없다는 101의 말에 깡통은 크게 웃었다.

[우리에게 걸린 걸 감사하라고 친구. 다른 요원이었다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머리통을 따버렸을 테니까.]

수는 101에게 멧쩍게 웃어 보인 뒤 깡통에게 속삭였다.

“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고 그래. 그냥 빨리 끝내자고.”

깡통은 수의 시야에 메시지를 띄우며 웃었다. 그의 커다란 눈알이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봐 친구. 어차피 저 AI는 몇 시간 후면 폐기될 운명이야. 어차피 없어질 운명인데 진실이라도 알고 가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 과연 저 AI는 어떤 반응을 지으며 죽어갈까?]

수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난을 치는 깡통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AI를 폐기한다는 웬지 모를 찝찝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의 앞에 갑작스럽게 101의 얼굴이 들이닥쳤다.

“당신들의 주장이 그렇다면, 신기하군요. 다른 우주의 생명체도 우리랑 같은 모습이라는 게 말이에요. 진화란 게 그런 걸까요? 결국 어느 우주에서든 유인원에서 진화한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는 걸까요?”

101은 빈틈을 찢었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깡통은 킬 킬거리더니 고전영화에 나올법한 외계인의 모습을 공중에 띄웠다. 점액으로 뒤덮인 연체동물의 모습이었다.

[저 녀석, 사실 이런 모습이라고.]

깡통의 말에 101은 수에게서 조용히 멀어졌다. 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봐 적어도 촉수는 보들보들하니까 안심하도록 해. 저렇게 끈적거리진 않는다고.]

수는 한바탕 웃어재끼는 깡통을 발로 밀어냈다. 깡통의 웃음소리와 함께 어색한 공기가 우주선의 콕핏을 가득 메웠다. 우주선은 또다시 출발하고 있었다. 빛이 늘어지며 우주선은 교육을 위한 곳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한 번에 누르라고 친구. 알았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나 바쁘니까 먼저 갈게!]

폐기공장까지 함께 온 깡통은 상부의 호출이라며 급하게 사라졌다. 분명 일부러 도망친 것이었다. 수는 혼자남아 대기실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수를 CCTV로 지켜보았다.

별거 아닌 일이었다. 핵심기억들만을 추출해서 새로운 AI에게 넣어주면 끝이었고, 그마저도 수가 참여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것이었다. 그러나 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수가 망설이고 있는 동안 101은 대기실에서 암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기본테스트일 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수의 고민 때문에 한참을 기다린 101은 조금 지루해 졌는지 의자의 양 끝을 붙잡고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익숙한 멜로디에 수의 시선이 101에게 돌아갔다. 가사는 잊었으나 멜로디를 따라 잊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인상적이던 주홍빛의 머리카락, 은은한 향기. 또는 떨리던 하얀 손가락과 그 사이로 비치던 햇빛, 혹은 그녀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었다.

멜로디가 엇박자로 뭉개지자 연상되던 기억들도 끊어졌다. 수는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다. 101이 흥얼거리는 멜로디의 끝 음정들이 불안해보일 만큼 떨리고 있었다.

“애초에 긴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수는 피식 웃으며 붉은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끝낼 시간이었다. 버튼위에 손을 올린 채 화면을 보고 있는 수의 시야에 새하얘지도록 의자를 붙잡은 101의 손끝이 보였다. 머릿속으로 햇빛을 받아 빛나던 그 하얀 손가락이 스쳐지나

갔다.

‘손가락 까지 닳게 만들었던가?’

수는 잠시 버튼에서 손을 뗀 채,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았다. 101이 안쓰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애초에 정보의 집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 할 것은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힌 날 단잠을 이루기 위한 적선행위와 같은.

수는 거침없이 대기실로 향했다.

수와 101은 잘 맞았다. 그것은 합이 잘 맞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잘 일치한다는 면에서 그러했다. 동일한 기억은 동일한 추억으로, 그리고 그것은 동일한 생각으로 드러났다.

겨우 나흘을 지낸 수와 101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것 같았다.

수는 101을 데리고 그의 애완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는 행성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도착한 애완동물용 행성에는 인간과 생물들로 가득했다.

“수. 나는 고양이라는 생물을 처음 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101의 눈동자는 주홍색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커튼처럼 살랑거리다 이내 사라져 갔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101의 눈동자는 그녀의 머리카락들이 뭉쳐서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 녀석 이름은 수정이야. 투명한 듯 하얀 털이 매력적인 고양이이지.”

101 반짝거리는 눈으로 허벅지 위에 앉은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털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저 행복해 보였다.

‘어차피 곧 지울 개체니까 괜찮겠지.’

깡통이 일주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이틀 동안은 101을 더 데리고 다닐 생각이었다. 각성한 AI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자신이 시뮬레이션 속 AI라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고 있는 101은 수에게 세계에 대해 그리고 유저들에 대해 자주 물었다.

수는 알고 있는 선에서 곧잘 대답해 주었다. 수는 이것이 사적인 실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폐기하고 나면 그녀가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틀판을 돌아보던 101이 말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었군요. 왜 저는 이런 곳에 올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매일 우주선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을까요.”

“뭐, 우주선 안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기반이 되었던 거 아니었을까?”

수의 말에 101은 애매한 표정으로 수정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런가요.”

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이제 와서 ‘사실은 거짓말이야. 넌 그렇게 계획된 인간이기 때문이지.’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스바스티카]를 운영하는 테트릭사에선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AI의 성격형성에 관여한다고만 설명하고 있었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누군가의 성격을 교정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던 수는 자신이 AI에게 과한 몰입을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경계를 넘어설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수 당신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수는 잠시 멈칫했다. 101의 의문은 이름의 뜻에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수와 수정은 묶일 수 있었지만, 101은 아니었다. 그것이 원인일 것이다. 101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이름과 분명 달랐다.

“나야 뭐. 별 이유 없이 발음이 좋아서?”

수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을 눈치 챘는지 101은 대답을 듣고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101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101보단 수정이가 더…….”

“더?”

101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101은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101과 수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01은 말실수라도 한 듯 민망해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괜한 말을 했습니다.”

수는 다시 수정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수정이의 털을 쓰다듬었으나, 수는 101의 안에서 번쩍거리는 별들을 보았다. 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수는 [스바스티카]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사실 [스바스티카]에서 유저와 AI의 차이는 없어.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는 경향성을 가진 정보덩어리라는 건 인간도 똑같으니까.’ ‘그럼 테트릭사는 인간을 만든 거야?’ ‘그게 좀 복잡해. 만약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인간은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원

송이가 인간이랑 똑같이 말도하고 문자도 쓰고 도구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그 원송이는 인간일까? 그럼 우리는 문맹인보다 그 원송이가 인간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수와 101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사념에 잠긴 듯 주홍빛 눈동자를 반짝거렸다.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는 그녀의 눈동자는 묵묵히 별들을 탄생시키는 성운처럼 보였다. 수는 문득 독수리 성운에 있다는 창조의 기둥을 떠올렸다.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수는 101에게 물었다.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니요. 전……. 수는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수는 웃었다.

“따라와. 함께 가자.”

수는 그 장소를 지금의 101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정확히는 그 장소에 있는 101을 보고 싶었다. 수는 그것이 자신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며, 회사가 가장 경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는 확신했다. 그 누구라도 저 번쩍거리는 주홍빛 눈동자를,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별의 섬광들을 보았다면, 자신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수는 101과 함께 아주 멀리 떨어진 외각행성으로 향했다.

“수. 이곳은 차갑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일까요.”

수에게서 이곳에 대한 설명을 들은 101은 위축된 자세로 수의 뒤를 따랐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수의 설명을 듣고 101은 이곳을 저승이라고 이해한 듯했다.

어두운 검은색 돌바닥과 옅은 호박색 하늘은 인간의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렸다. 수와 101은 황량한 근교 공원을 지나, 불이 반쯤 나간 간판 앞에 도착했다. 허름한 집들이 도로의 주변에 가득했다. 십 년 전만 해도 북적거리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이곳은 버려진 곳인가요?”

101의 질문에 수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영생을 위해 저승에 거주하다니 이상한 방법이군요.”

101의 말에 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횡한 도시 사이로 흐르는 바람이 수의 마

음을 흔들어들었다. 수의 곁으로 101이 다가와 웃었다.

“수.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 인류는 이런 경험으로 더욱 발전할 테니까요.”

수는 101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녀가 달라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수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어쩌면 틀렸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첫 만남 때와는 달리, 그녀는 이제 인류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수는 101이 자신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지 궁금했다.

“사실 수정이도 죽은 지 오래 된 고양이야. 살아있을 때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 생명체에 집어넣어 되살렸지.”

수는 수정이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101에게 말했다.

“이곳은 그런 수정이의 인간 버전인 셈이고.”

101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둘에게 무관심 하거나 그저 무의미하게 서있었다.

“수. 나는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하긴, 학교와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다들 자기 세상에 갇혀 사니까.”

101은 세상에 갇혀 산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반복했다.

“수는 많은 세계를 여행했나요?”

101의 질문에 수는 어깨를 으쓱 했다.

“많은 세상들을 봤고 느끼고 기억하지. 지금 이 순간도.”

“수를 있게 해준 건, 그 많은 세상들이었군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101의 말에 수는 무엇에 찢린 듯 저릿해지는 손끝을 느꼈다. 친구의 목소리가 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친구.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는 경계란 게 있어.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과 비슷해져도 넘어지지 않는 원숭이계열의 끝.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원숭이와 비슷해져도 넘어지지 않는 인간 계열의 끝. 그 사이 어딘가에 말이야. 어떻게 보면 테트릭 사는 그 경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 1/3의 광속이나, 고양이가 없는 세상 같은 것들로 말이야.’

친구와의 대화는 온갖 생각들과 뒤섞인 채, 수의 머릿속을 표류했다.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에게 101은 갑자기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해가 지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101이 가리키는 손끝에는 높은 종탑이 있는 건물이 있었다. 그곳은 수가 보여주고 싶던 곳이었다.

“수.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오늘은 저곳에 가고 싶어요.”

101은 수의 손을 잡고 앞장서 걸었다. 101의 발자국 소리가 낡은 건물 벽들을 타고 울렸다. 도착한 건물은 천장이 무너져 있었다. 반절가량 남아있는 높은 천장에서는 그녀의 눈동자와 비슷한 색이 스며들고 있었다.

먼지 때문에 건물 내부는 뿌옇게 물들어 있었다. 수는 벽에 걸린 촛대에 불을 붙였다. 빛이 거대한 벽을 타고 올라갔다. 벽의 꼭대기에는 [AI개발을 위한 기억 기증자]라고 새겨져있었다.

“기억 기증자…….”

101은 말꼬리를 흐리며 이름들을 훑어보더니, 단번에 이름 두개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었다. 이름들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내뱉어졌다. 하나는 나흘 동안 수없이 말해왔던 이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없이 말한 것처럼 익숙한 이름이었다. 수는 그 목소리를 잠자코 들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앓을 갈망하는 수도승의 것 같기도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그 주홍빛 향기와 같아져 갔다.

수는 그녀의 옆에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열기 때문에 수는 며칠 전 보았던 그 원시행성을 떠올렸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건. 많이 슬픈 일이에요 수.”

그녀는 수의 몸을 감싸 안았다. 수는 그녀의 눈동자가 원시행성의 표면처럼 붉어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원시행성 위로 떠오르던 태양과는 반대로, 건물 안으로 비치던 빛줄기가 얇아져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론상으로 그 빛줄기는 현실보다 1/3 가량 느린 속력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곳은 시뮬레이션 속이니까. 그래야 현실과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수는 빛의 속도가 얼마이든지는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곳과 이곳의 차이는 단지 빛의 느낌과 빠름이었으나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를 알고 있어요. 그녀의 기억들이…….”

101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아니, 어쩌면 101인 내가 수와 함께 있고 싶어요.”

듣고 싶던 목소리가 사원에 울렸다. 그 목소리는 수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였다. 수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닿아야겠다는 뜻이 곧 두박질치고 있었다.

수에게 있어 빛이 느린 것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겨우 그 정도의 경계라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의 품으로 파고든 그녀에게선 주홍

빛 향기가 났다. 수는 수정이를 쓰다듬던 그녀의 손, 나흘간의 시간, 그녀의 새하얀 손가락,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떠올렸고.

마침내 손바닥 보다 작던 그 붉은 버튼을 떠올렸다.

그 버튼의 앞에서, 수의 마음은 추락하는 것을 멈췄다. 101에게선 아직도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으나 붉은 버튼은 선명해져만 갔다. 수는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때 누르지 못했던 붉은 버튼이 자신과 101사이를 가르는 경계였던 것이다. 자신은 그 경계에 하염없이 가까워질 뿐 절대 넘어설 수 없었다.

수는 그제야 깡통이 자신을 남겨두고 일주일이나 사라졌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떠나던 깡통의 표정을 떠올린 수는 피식 웃었다. 쓰다듬던 손을 멈춘 수는 폐기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는 이제 망설임 없이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았다.